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1. 21.(목) 11:00,  
(지면) 2024. 11. 22.(금) 조간

배포 2024. 11. 21.(목) 06:00

## 한-싱가포르, 국제해사분야 공조 강화

- 해수부, 제9차 한-싱 해사안전정책회의 참석하여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등 협력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22일(금) 싱가포르에서 ‘제9차 대한민국-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석(수석대표 :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이번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 양국 간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은 2010년 8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국이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번갈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사 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제9차 회의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항만국통제 협력,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항행 안전 증진, △아시아 해적피해 예방, △해사 사이버안전 강화 등에 관한 양국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디지털화 정책의 일환으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싱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항로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협력 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안) 마련을 위해 활발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친환경 연료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선박 운항 시 배출되는 탄소를 없애고 운송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한-싱 수교 50주년인 내년에 아시아 주요 허브 항만을 보유한 싱가포르와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추진 중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해사 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우호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는 한편, 한-싱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등 공동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창용 (044-200-5810)
		담당자	사무관	윤상일 (044-200-5841)



< 대한민국 수석대표(해사안전국장) >



< 싱가포르 수석대표(MPA 청장) >



< 대한민국 정책 발표 >



< 싱가포르 정책 발표 >



< 양측 대표단 단체사진 >